

민주 통합 선대위 실무·핵심 요직 호남 인사 대거 포진

공동 선대위원장에 정은경·이석연·박지원·정동영 4명
후보실·비서실 이춘석·이해식 의원, 조직본부장 신정훈
경선 후보들 감싸 안고 진보·보수·중도 인사 두루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매머드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22명의 선대위원장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4명의 호남출신 인사가 포진됐다.

선대위원장들이 친명 인사부터 비명계, 중도·보수 인사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에 걸맞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직속기구인 후보실과 비서실에 전북과 전남 출신인 이춘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실장으로 배치됐고, 이 후보 배우자를 지원하는 배우자실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임선숙 변호사가 합류했다. 후보 총괄특보단 단장은 전북 출신 안규백 의원, 수석부단장도 전북 출신 소병훈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며 중앙선대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선대위에는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실무 핵심 요직 곳곳에는 친명계와 호남 인사를 배치했다.

일단 총괄선대위원장 7명 중에는 광주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처장이 들어갔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 전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은 인물로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활동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 정치권의 잇단 러브콜을 받았으나 현직인 의사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선대위에 포함됐다.

전남 진도 출신 5선 의원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과 광주·전남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향후 대선 과정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전북 출신인 정동영(전주시

병)의원과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포함됐다. '친명'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3선 의원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아 전국 조직 등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정진숙(광주·동남갑) 의원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수행실장·원내대책본부 부본부장 등을 겸임하게 됐다.

15개의 후보 직속위원회 중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남 출신이 맡는다.

해남 출신 민형배(광주·광산을) 의원이 'K-이니셔티브 위원회' 위원장에 완도 출신 손명수 의원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북 출신 박용진 전 의원은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대선 선거기간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전국 골목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듣고 지지를 호소하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실장에는 전진숙(광주·북구을) 의원이 활동한다. 전 의원은 먹사니즘 보육위원장도 겸임하게 됐다.

광주·전남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아 이 후보와 함께 광주·전남의 골목을 누비게 됐다.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광주 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인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과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맡게 됐다.

안도걸(광주·동남을) 의원은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잘사니즘 위원회 산하위기 지역살리기 위원장을 겸임한다.안 의원의 사촌 동생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잘사니즘 위원회의 서민·중산층경제 살리기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정준호(신속대우부단장), 박균택(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이개호(꿈사니즘위원장), 서삼석(농어민본부장), 김원이(꿈사니즘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 문금주(조직 부분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 김문수(유세 부분부장), 권한영(여성 부분부장), 조계원(잘사니즘 체육위원장) 등 광주·전남 현역 의원 전원이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선대위 인사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선 후보들의 지지 세력을 감싸 안았고, 진보와 보수 뿐 아니라 중도 인사까지 두루 배치 했다는 점에서다.

'보수 책사' 윤여준, '노무현 정부' 출신 강금실, '이명박 정부' 출신 이석연,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등은 선대위가 추구하는 '통합'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

3년내 쓰는 ‘연차 저축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휴가 지원 3중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

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쟁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일하는 시간이 김수목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 세자금 이자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개선하는 방안,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드는 방안,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중·고생 자녀의 예제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 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 5·18행사 초대장...5·18 이후 처음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5만에 처음으로 위원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5·18 기념행사 초대장을 보냈다.

우 의장은 광주시에 초대에 응해 5월 16일부터 18일 정부기념식 당일까지 광주에 머물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에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담당자들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

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 포럼’과 17일 광주시가 진행하는 5·18 전야제 등 기념행사를 소개했다.

이 기간 먼저 행사에 참석 한 뒤 5·18 당일 정부 기념식까지 참석을 요청한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뜻깊게 준비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정국을 오월 정신으로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80년 오월 광주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전국,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호응에 여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님맞이에 나서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이에 광주시는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5·18을 알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 투어, 오월 나눔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과 빵 나눔세일 등도 준비한다.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오월 텐트촌’을 꾸려 80년 5월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월광주.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하다”면서 “5·18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